

시중에 풀린 유동성 3100조 돌파... 광의통화는 9.8조 ↑

4월 말 이후 가파른 증가세 이어져 광의통화, 올해 들어 200조 늘어 가계·비영리단체 5조3000억 증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3100조원을 넘어섰다. 시중 통화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4월 말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한 이후로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8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광의통화량(M2 기준)은 3101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8000억원(0.3%) 늘었다. 전월 대비 증가폭은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9.5%나 늘어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졌다. M2는 올해 들어서만 20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통화·유동성 지표 추이(계절조정계열 기준)〉

(평잔, 조원)

	2018	2019	2020			
	연간	연간	5월	6월	7월	8월 ¹⁾
M1(협의통화)	841.0 (4.9)	876.9 (4.3)	1,035.1 (2.9)	1,058.1 (2.2)	1,077.2 (1.8)	1,095.2 (1.7)
M2(광의통화)	2,626.9 (6.3)	2,809.9 (7.0)	3,053.9 (1.2)	3,077.1 (0.8)	3,091.8 (0.5)	3,101.6 (0.3)
Lf(금융기관유동성)	3,686.4 (7.0)	3,979.1 (7.9)	4,286.4 (0.8)	4,308.5 (0.5)	4,325.9 (0.4)	4,342.7 (0.4)
L(광의유동성) ¹⁾	4,839.1 (6.8)	5,211.2 (7.7)	5,431.2 (0.9)	5,462.3 (0.6)	5,506.9 (0.8)	5,508.4 (0.0)

주:1) L(광의유동성)은 말잔 기준 잔액 및 증감률
2) ()내는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증감률(%)

/한국은행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이상 M1)을 비롯해 머니마켓펀드(MMF)·2년미만 정기예적금·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2년미만 금융채·2년미만 금전신탁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5조3000억원이 늘었고, 기타부문에서도 7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기업과

기타금융기관의 통화량은 각각 1조 6000억원, 1조3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상품별로는 단기 운용상품에 주로 몰렸다. 예금금리가 하락한 데다 투자를 위해 대기성 자금의 수요도 컸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8조8000억원 규모로 늘었고, 지방정부 교부금 유입 등으로 요구불예금도 7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2년미만 정기예적금은 6조원 감소했다.

한은은 당분간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고민은 깊어졌다.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일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완화된 금융여건 하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간 취해진 통화

재정정책 대응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은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 자금이 주로 단기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8월 단기자금 지표인 M1(협의통화)은 109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8조원(1.7%) 증가해 M2 증가율(0.3%)보다 더 가팔라졌다.

한은은 "시장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시중 유동성이 단기화되고 있다"며 "단기화된 자금이 수익추구를 위해 자산시장 등으로 쏠릴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강희석 대표이사, 이마트·쓱닷컴 겸직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가속화

신세계그룹 2021 정기 임원인사

임원 수 축소·젊고 실력있는 인재 기용 전문성 강화·우수 인재 적재적소 배치

신세계그룹이 10월 15일자로 이마트 부문에 대한 2021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경영 환경 극복과 경영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성 강화 및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한편, 온라인 역량 강화 및 온오프 시너지 창출과 조직 효율 제고 및 신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

또, 전체적으로 임원수를 축소하면서, 젊고 실력있는 인재를 과감히 기용, 인재 육성 및 미래 준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SSG.COM 대표이사에게 이마트 강희석 대표이사를 내정했다. 이에 따라 강희석 대표이사는 이마트와 SSG.COM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이사에는 이마트24 김성영 대표이사를, 이마트24 대표 이사에는 신세계I&C 김장욱 대표



강희석
이마트·SSG.COM 대표이사



김성영
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이사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

이사를 각각 내정했으며, 신세계푸드 대표이사는 신세계푸드 마케팅담당 송현석 상무를, 신세계I&C 대표이사에는 신세계I&C IT사업부장 손정현 전무를, 신세계건설 레저부문 대표이사에는 전략실 지원총괄 이주희 부사장보를 내정했다.

이마트 노재악 부사장보와 형태준 부사장보는 부사장으로, 광정우 상무는 전무로 승진했다.

신세계그룹은 전문성 강화,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조직 시너지 제고를 위해 각 사별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이마트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조직문화 선진화를 추진한다. MSV담당을 신설하고, 현재 4담당 체제인 판매담당을 5담당 체제로 확

대하는 한편, Metro담당 신설을 통해 영업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조직문화 본부를 신설해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SSG.COM은 온라인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그로서리사업본부, 신사업본부, DATA/INFRA본부, 지원본부 등으로 조직 체계 전반을 재구축했다. 특히, 이마트와 SSG.COM은 대표이사 겸직을 통해 향후 온오프 통합적 사고 및 시너지를 크게 강화하게 된다.

신세계푸드는 제조서비스부문과 매입유통부문 부문 대표 체제를 단일 대표 체제로 재편하는 한편, 조직 전반의 효율과 시너지를 제고도록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김학도 "스마트팜 활성화... 다방면 지원"

(중진공 이사장)

충북 옥천 '넥스트온' 방문 기업 애로사항 청취·공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현장 행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스마트팜을 찾았다.

중진공은 김 이사장이 15일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스마트팜 우수업체인 넥스트온을 방문해 관련 분야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했다고 밝혔다.

넥스트온은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스타트업으로 현재 서울남부터미널에 도시형 스마트팜 시범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B인베스트먼트와 미국 트랜스링크 등에서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등 국내외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

간담회에는 김 이사장과 최재빈 넥스트온 대표, 음영만 천풍무인항공 대표 등 6차산업 관련 스타트업 대표 6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1차산업인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스마트팜은 농업분야 혁신을 이끌

미래신산업"이라며 "중진공은 스마트팜의 확산·보급을 위한 자동화 설비 구축과 관료개혁에 더불어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한편 최근 농업인구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의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 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승호 기자 bada@

스타벅스와 40대 이상 소상공인 재기 지원



'리스트ارت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와 함께 '리스트ارت 지원프로그램' 2차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스트ارت 지원프로그램'은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스타벅스가 체결한 자상한기업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40대 이상 재기소상공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6시간의 바리스타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지원 내용으로는 경영노하우 전수를 포함해 ▲바리스타 이론 ▲

실습 ▲매장 현장체험 ▲교육생 웰컴 키트(교육용 앞치마, 모자, 티셔츠) ▲교육 수료증 발급 등이다.

우수 교육생으로 선발될 경우 스타벅스 내부 절차를 통해 바리스타 채용 기회가 주어지며 카페를 재창업할 경우 스타벅스 매니저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의 '재창업교육' 및 '재기교육'을 이수하고, 1980년 12월31년 이전 출생한 카페 재창업 및 취업 예정인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이다. 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및 수도권 소재 스타벅스 교육장 및 매장에서 교육 참여,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2025년까지 스마트슈퍼 4000개 육성"

소상공인 삶의 질 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 정책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동작구 형제슈퍼에서 스마트슈퍼 1호점 개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기부는 스마트슈퍼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참석해 스마트슈퍼 1호점 현판식에 이어 무인 출입과 셀프계산 등 스마트기술을 시연했다. 이어 박 장관은 김성영 이마트24 대표, 이창우 동작구청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최창우 한국나들가게연합회장 등과 함께 동네슈퍼의 스마트화 추진을 위한 차담회도 진행했다.

동네슈퍼는 전국 약 5만개의 대표적

서민 업종 중 하나다.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운영 등 경영 여건과 삶의 질이 매우 취약하다. 또 자본력과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19 후 급격히 진행 중인 비대면·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이날 개점식에서 2025년까지 스마트슈퍼 4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